



경희대학교

# 2014학년도 신입생 수시 2차 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예체능계)

[11월 9일(토) 오후]

지원학부(과) ( )

수험번호

성명 ( )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0점 또는 감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인문·예체능계 문제지는 총 1장 2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 [가]

지식인에게 망명자적인 추방은 관례적인 단계를 거쳐 '성공'에 이를 것을 목표로 하는 일상화된 삶의 이력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망명은 당신이 언제나 주변화되고 있음을 뜻하며, 지시된 길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 운명을 박탈이자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일종의 자유이자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자신의 관심을 끄는 것들을 행하는 발견의 과정으로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요구에 따라 설정되는 특수한 목표로서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독특한 즐거움이 됩니다. 망명은 적응과 무조건적인 긍정, 정착이라는 보상에 유혹당하거나 심지어 그러한 보상을 미끼로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받는 지식인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실제 이주민이나 추방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장벽들을 무릅쓰고 상상하며 탐구하는, 그리하여 언제나 중심화된 권위로부터 벗어나 주변을 향해 사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한 번도 관습과 편의를 넘어 여행해 본 적이 없는 마음들이 상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인이 망명자처럼 주변인이 되고 길들여지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은 그가 권력자보다는 여행자에, 관습적인 것보다는 임시적이고 위험한 것에, 현 상황에서 주어진 권위보다는 혁신과 실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명자적인 지식인의 역할은 관습의 논리에 따르지 않고 대담무쌍한 행위에, 변화를 표상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전진해 가는 일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 [나]

사과 꽃이 피기 전 매우(梅雨)의 계절에 그는 밤늦도록 안방에서 책을 읽으면서 새웠다. 그 방에는 아버지와 형님, 누나 세 사람이 읽어온 책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책이 다 그의 것이었다. 아버지 책은 거의 모두가 오래된 일본 법률책이었다. 그것들은 준에게 아무 쓸모없는 휴지들이었다. 형과 누나의 책은 대부분 소설이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읽었다. 누나가 발일 속으로 망명한 것처럼 그는 책 속으로 망명하였다. 그가 제일 좋아하며 되풀이해서 읽은 책은 『플란더즈의 개』였다. 아름다운 사랑, 개와 사람 간에 맺어진 우정과 믿음, 어른들의 쓸데없는 걸치레, 소년의 야망. 우연이 빚어낸 비극. 아름답고 착한 소년이 바르고 씩씩하게 살다가 쓰러지는 모습이 그를 감동시켰다. 『집 없는 아이』도 그를 기쁘게 했다. 그것은 『플란더즈의 개』와는 거꾸로 바르고 굳센 사람이 끝내는 이기고 마는 이야기였다. 레미 소년과 더불어 그는 프랑스 방방곡곡을 떠돌았다. 원숭이가 폐렴에 걸렸을 때 준은 몹시 슬펐다. 양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레미의 마음을 헤아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모험과 싸움의 이야기가 그의 어린 마음을 즐겁게 했다. 이런 쉬운 이야기만 읽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두툼한 『나나』를 몰래 읽고 있었다. 이 게으르고 방종한 여자의 이야기가 어찌면 그렇게 재미있을까. 그는 나나가 벽난로 앞에서 맨몸뚱이가 되어 불을 쬐는 대목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다. 『플란더즈의 개』나 『집 없는 아이』와는 또 다른 세계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더 아찔하고 짜릿한 세계였다. 『나나』를 그는 몰래 읽었다. 어쩐지 남이 보는 데서 읽기는 계면적였기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만은 그는 버젓이 그 책을 펴놓고 읽었다. 어머니는 한글과 한문을 조금 뜯어볼 뿐, 책을 못 읽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저 준이 아무 책이나 들고 있으면 공부하는 줄만 알고 몸이 상하겠다고 늘 말했다. 그럴 때 그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죄의식을 느꼈었다. 그것은 아마 그 자신 분명히 죄스럽다고 느낀 맨 처음 감정이었다. 죄의 기쁨 속에서도 이야기의 세계는 여전히 매력이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거꾸로 선 세계, 물구나무 선 마음의 나라였다. 이야기가 더 현실적이고 현실이 더 거짓말 같은 질서였다.

<뒷면에 계속>

[다]

나는 필명이 적요(寂寥)이다.  
평생 시 이외의 잡문을 쓴 바도 없고 텔런트처럼 이리저리 얼굴을 내밀지도 않았다. 천박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일수록 천박한 짓과 천박하지 않은 짓을 악착같이 나누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혁명을 꿈꾸던 젊은 날 배운 것이었다. 지식인들은 더욱 그러했다. 그들은 천박한 자신의 욕망을 갖은 말로 치장해 감추면서, 세상에 대고 두 개의 나팔을 불었다. 이를테면 천박한 자라고 판결을 내리는 자에겐 트럼펫을 불고, 천박하지 않은 자라고 판결을 내린 자에겐 우아하게 색소폰을 불어대는 식이다. 그런 자 중에서 자기 판결의 확고한 명분을 갖고 있는 자는 사실 드물다. 명분이야 난무하지만, 대개는 눈치로 때려잡는다. 좀 더 깊이 알거나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지점을 향해 색소폰을 불었다 하면 그제야 너도 나도 줄지어 집중포화로 포즈도 우아하게, 색소폰을 일제히 불어 쫓힌다. 천박하다고 판결해, 트럼펫을 불어야 할 때는, 그 짓조차 오물을 뒤집어쓸지 몰라 조심조심하다가 최종적으로, 침묵은 밀져도 본전이라는, 지식인 사회의 은밀한 불문율을 따라가고 마는 것도 그들이다. 문단이라고 뭐 예외가 아니다. 내가 필명을 적요라고 정할 때, 사실 나는 그런 지식인 사회의 구조를 명백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들이 온갖 소음의 진원지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고백하거니와, 적요라는 필명은 그러므로 나의 여우같은 전략이자 그런 자들에게 대한 통렬한 발언이기도 했다. 내 전략은 유효했고, 시인으로 나는 성공했다. 성공하기까지 기다림이 좀 길었을 뿐이다.

[라]

근래 대중을 가르치며 돈을 버는 ‘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사실 대중의 의견, 즉 대중이 집회 때 갖게 되는 의견 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혜라고 부르는 것 역시 대중의 의견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하고 힘센 짐승을 사육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이런 사람은 그 짐승의 기질과 욕구를 잘 연구해서 그 짐승을 가까이하거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어떤 경우에 가장 난폭하고 어떤 경우에 가장 유순한지 그리고 왜 그런지를 알게 된다. 또한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를 지르는지, 반대로 어떤 소리를 내면 유순해지고 어떤 소리를 내면 사나워지는지 알게 된다. 그는 오랜 접촉을 거쳐 이런 것들을 모두 배운 뒤 그것을 지혜라 부르며 하나의 기술로 체계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준다. 하지만 그는 그 짐승의 취향과 욕구들 가운데 어느 것이 아름답고 추한지, 또는 좋고 나쁜지, 또는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은지 실제로는 알지 못하면서 오직 거대한 짐승의 반응과 결부시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다. 말하자면 그는 그 짐승이 좋아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 하고, 그 짐승이 싫어하는 것을 나쁜 것이라 한다. 그는 이에 대해 달리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필요한 것을 올바르게 아름답다고 일컫지만, 필요한 것과 좋은 것의 본성이 실제로 얼마나 다른지는 관찰한 적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도 없다.

[마]

나무는 자기 몸으로 /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 두 손 올리고 별 받는 자세로 서서  
아 별 받은 몸으로, 별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 꽃 피는 나무이다

[문제 I]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비교하시오.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 배점 30점]

[문제 II]

제시문 [마]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주인공, [다]의 화자, [라]의 ‘현자’의 태도를 비판하시오. [1101자 이상 ~ 1200자 이하 : 배점 70점]